



◀ 전준호 2천 안타 송진우 3천 이닝 투구 ▶

# 대기록 터진다



양준혁 최다 홈런(340개) 2개 남아

를 쓴 전준호는 양준혁(39·삼성)에 이어 역대 2번째 2천 안타 달성에 4개만을 남겨놓고 있다.

2천 경기 출장 기록을 달성한 뒤 "2천 안타만은 욕심을 내고 싶다"고 밝혔던 전준호는 꾸준한 출전 기회만 보장받으면 추석 전에 2천 안타 고지에 오를 수 있다. 매일 프로야구 타격 부문 기록을 써나가고 있는 '기록의 사나이' 양준혁은 장종훈(현 한화 코치)이 세운 통산 최다 홈런(340개)에 도전한다.

올스타 휴식기 전까지 95경기에서 홈런 7개를 쳐내며 통산 337개로 휴식기를 마친 양준혁은 지난달 28일 목동 히어로즈전에서 홈런을 추가해 장종훈의 기록에 2개 차로 다가갔다.

삼성이 정규리그 20경기를 남겨둔 가운데 양준혁의 올해 페이스를 산술적으로 환산하면 28경기를 더 치러야 올해 안에 2개의 홈런을 재출 수 있을지 여부는 시즌이 끝나야 알 수 있다.

3천 이닝 투구라는 전인 미담의 고지 문턱에 올라선 투수 부문 '기록의 사나이'인 송진우(42·한화)의 기록 달성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해까지 2천863 이닝을 던진 송진우는 올해 121

이닝을 추가, 모두 2천984 이닝을 던져 3천 이닝 투구에 16이닝만을 남겨뒀다.

변수가 있다면 8개 구단 가운데 우천 취소가 가장 적었던 한화가 126경기에 단 17경기만 남았다는 것. 2일 잠실 투산전에 등판한 송진우에게는 계산대로라면 앞으로 2~3경기의 선발 등판 기회가 주어진다. 올해 23차례 선발로 나서 평균 5이닝을 조금 넘게 소화한 송진우는 이에 따라 3차례 선발 등판 기회 가운데 한 차례라도 일찍 무너질 경우 대기록 완성을 내년 시즌으로 미뤄야 한다.

영원한 에이스 이대진(34·KIA)은 통산 100승에 3승을 남겨두고 있다. 팀의 잔여경기는 21. 산술적으로 4차례 정도 등판이 가능하지만 급박하게 돌아가는 팀 사정에 따른 마운드 총력전으로 등판 기회가 줄어들 수도 있다.

지난달 29일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도 2 이닝(1실점)만 소화하고 마운드를 내려줬던 만큼 이대진의 기록 달성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꾸준함의 대명사 장성호(31·KIA)는 11년 연속 기록에 도전한다. 두 자릿수 홈런과 세 자릿수 안타 그리고 20 2루타 기록을 10



## 전국실업핸드볼대회 오늘 목포대서 개최

올림픽 스타들 총집합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재현한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들이 4일 무안 목포대학교 체육관에 다시 모인다.

소속 팀에 복귀한 선수들은 다이소배 전국실업핸드볼대회에 참가해 10일까지 6일 동안 최고 기량을 뽐낼 예정이다.

4일 오전 11시 여자부 부산시설관리공단-경남개발공사 개막전을 시작으로 남녀부에서 모두 22경기가 치러진다.

여자부의 경우 오성욱(히로박) 등 해외파 5명은 빠지만 대표팀 주전 수문장 오영란을 비롯해 문필희, 박정희, 김은아, 김남선(이상 벽산건설), 안정화, 송해림(이상 대구시청), 이민희(용인시청) 등 대표 선수 8명이 출전한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 은메달에 이어 베이징올림픽에서도 동메달을 따낸 임영철 대표팀 감독은 벽산건설 지휘봉을 잡고 모습을 나타낸다.

여자부는 벽산건설과 대구시청, 용인시청, 삼척시청, 부산시설관리공단, 경남개발공사 등 기존 6개 실업 팀에 전국체전을 위해 만들어진 전남체육회까지 가세해 모두 7개 팀이 2개 조로 나눠 조별리그를 치른 뒤 4강 토너먼트로 최종 우승 팀을 가린다. 하지 만 영화·우성순의 실재 주인공임으로 감독이 이끄는 신생팀 서울시청은 이 대회에 참가하지 않는다.

난쟁이 이연은 장성호는 남은 경기에서 3개의 홈런, 15개의 안타, 4개의 2루타를 터트리면 11년으로 기록을 연장하게 된다.

장성호가 2일까지 최근 5경기에서 0.421의 타율을 기록하며 홈런 1개와 2루타 1개를 추가하는 등 패조의 타격권디션을 보이고 있는 만큼 기록 잇기는 무난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연합뉴스

## 베이징 장애인올림픽 사상 최대

148개국서 총 7천383명 참가  
한국 선수단 어저 선수출입준

"하나의 세계에서 하나의 꿈으로 장애를 뛰어 넘어 인간 평등을 확인하자."  
세계 장애인 스포츠인들의 최대 축제인 제13회 베이징장애인올림픽 개막(6일)이 이를 앞으로 다가왔다.

사상 최대규모 올림픽이라는 찬사를 받은 베이징올림픽의 감동이 채 가시기 전에 열리는 장애인올림픽(패럴림픽)인 만큼 어느 대회보다도 세계인들의 관심이 높다. 한국 선수단도 3일 오후 선수촌에 입주하면서 베이징대회를 위한 본격 준비에 나선다.

베이징올림픽과 마찬가지로 이번 패럴림픽 역시 사상 최대 규모다.

148개국에서 축구장애, 절단 및 기타장애, 뇌성마비, 시각장애를 가진 선수 4천99명 등 7천383명이 참가한다.

지난 아테네대회 당시엔 참가국과 참가인원이 각각 136개국과 6천200명이었다. 종목도 조정이 추가돼 총 20개 종목과 295개 세부종목으로 늘어났다.

17일까지 계속되는 대회 기간 대부분 경기는 올림픽 주경기장인 나오차오(鳥巢) 등 베이징내 올림픽 시설에서 열리지만 요트와 승마는 각각 칭다오와 홍콩에서 개최된다.

베이징패럴림픽의 엠블럼은 '하늘, 땅 그리고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선수의 움직임 형상화해 장애인 선수들이 삶과 스포츠에 쏟아붓는 부단한 노력을 표현했다고 조직위는 설명했다.

한국 선수단은 '팀 코리아'라는 단일 명칭을 갖고 대회에 임한다. 팀 코리아에는 선수단을 응원하는 서포터즈도 포함된다.

'팀 코리아'는 전체 20개 종목 중 육상, 양궁 등 13개 종목에 선수 78명 등 132명이 참가해 금메달 13개로 종합 14위를 차지함으로써 세계 7위를 달성한 베이징올림픽의 감동을 이어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2008 베이징 장애인올림픽에 출전할 프랑스의 사이클 선수가 3일 코치와 함께 베이징 메인 스타디움 밖 광장을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 페더러 힘겹게 8강

US오픈 테니스 남단식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2위·스위스)가 폴셋트 점진 끝에 US오픈테니스 남자단식 8강에 올랐다.

페더러는 3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플러싱 메도의 빌리 진 킹 내셔널테니스센터에서 열린 대회 9일째 남자단식 4회전에서 이고르 안드레예프(23위·러시아)를 3-2(6<5>-7 7-6<5>-6 3-3-6-6-3)로 이겼다. 4세트를 뺏겨 마지막 세트까지 풀러간 페더러는 게임 스코어 1-0에서 안드레예프의 서브 게임에 따라 3-0까지 달아나 승세를 굳혔다. 2004년부터 4년 연속 정상상을 지키며 최근 이 대회 31연승 행진을 계속한 페더러는 돌풍의 주인공 길레스 빌라(130위·룩셈부르크)와 준결승 진출을 다룬다.

세계랭킹 3위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도 토미 로브레도(15위·스페인)를 3-2(4-6-6-2 6-3 5-7 6-3)로 꺾고 8강에 합류했다. 조코비치는 2003년 이 대회 챔피언 앤디 로딕(8위·미국)과 4강행을 다룬다.

- 4일(목)
  - ▲메이저리그 <뉴욕Y: 랩과베이>(08:00·Xports)
  - ▲전국주체대학축구 8강(11:30·KBSN SPORTS)
  - ▲SBS 코리아투어 연우 해변랜드 오픈 1R(13:00·SBS골프)
  - ▲프로배구 여자부 준결리그(16:00·KBSN SPORTS)
  -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히로시마>(17:45·SBS스포츠)
  - ▲프로야구 <기아: 삼성>(18:00·KBSN SPORTS), <LG: 롯데>(18:30·MBC ESPN), <우리: SK>(18:20·Xports), <한화: 두산>(21:00·SBS스포츠)
- 5일(금)
  - ▲2008 US 오픈 테니스(00:00·Xports)
  - ▲2008 PGA BMW 챔피언십 1R(04:00·SBS스포츠·SBS골프)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시장흐름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자산컨설팅명가  
광주·전남권 토지·건물 구합  
Tel:062)973-9174, 016-757-8800

**토지구합** **수원지구** **건물매매**  
상업용지

**철단지구상업용지**  
1100평 40억(평당 470만)  
200평 22억(평당 1100만)

**수원택지개발지구**  
이주지택지  
협의안도인택지  
생활대택지

**신창택지개발지구**  
상업용지 140평 근생 122평 80평

**전용 가능한 급매물**  
자연녹지: 3800평·대형차전입가 6차선전  
생선녹지: 2800평·평동광안인근 북가신전

**우량임야**  
(연수원 복지시설 공판장 추사 등)  
담양 25만평 장성 14만평 보성 9만평  
보성 56만평 함평 50만평  
투자예비 수익성이 높은  
골프연습장 매대가 17억 5천만원

**향촌동 260평**  
2층주거지역 긴급처분  
투자유망 평당 450만  
화순읍 주거지역 240여평  
공장  
하남공단 800평

**건물 매도**  
27억 (보증금 3억5천 월1900만)  
19억 (보증금 1억5천 월1300만)  
투자가치 최고의 절세형 물건

● 광주·장성권 토지·건물 ●  
투자유망물건 다량 보유 (0천만원~000억원)  
062)973-9177, 010-3625-1362  
철단지구 국민은행 주차장으로 오십시오

부동산 권매개의 자부심!  
**법원경매 대동법률(주)** T.062)223-6600 010-7668-6622

지역	소재지	면적(㎡)	감평가	최저가	비고
서울	자선동 삼성	105 15/11	9천2백	6천5백	
	공산동 호반	89 15/6	5천1백	3천5백	
서구	금호주공	105 20/17	1억1천	1억	
	영동동 삼익	82 12/7	6천8백	4천7백	
	금호동 호반	100 20/7	1억1천	7천7백	
	금호대인	105 20/6	8천5백	6천2백	
남구	산일동 중화지	105 20/10	9천8백	6천9백	
	월산동 리안	105 21/18	8천1백	5천9백	
	봉선동 무연지	165 24/11	2억2천	1억9천	
	월산동 리안	88 15/3	4천8백	3천3백	
북구	주월동 현각지	88 15/8	9천3백	6천5백	
	문흥동 대우지	66 13/7	4천1백	2천8백	
	연암대리동지	100 20/16	9천1백	6천8백	
	연암동 새한	79 20/3	4천8백	3천2백	
동구	문흥동 대우지	109 13/13	6천2백	4천2백	
	안산동 현남	82 22/8	5천1백	3천5백	
	문흥동 리안	105 20/18	8천5백	5천9백	
	오차동 무연지	112 17/13	8천1백	5천9백	
서구	월산동 동우	122 15/7	1억3천	9천1백	
	도산동 현남	78 13/8	5천5백	3천8백	
	월산동 현남	105 15/8	1억	7천	
	월산동 현남	105 15/8	1억	7천	

**다각구·월동**  
지역 소재지 면적(㎡) 가구수 감평가 최저가 비고  
지역 소재지 413/850 12/2구 9,927천 59만천

**숙박시설**  
지역 소재지 면적(㎡) 층 감평가 최저가 비고  
나 주 2761/2071 4층 15억 8천원 1억4천원

**주거**  
지역 소재지 면적(㎡) 감평가 최저가 비고  
지역 소재지 154/173 1억1천 9천 8천  
지역 소재지 221/152 1억1천 9천 9천

**개발·오피스빌**  
지역 소재지 면적(㎡) 감평가 최저가 비고  
지역 소재지 578/106 6,833억 5,285억  
지역 소재지 182/174 1,965억 5,285억

**농가주택·시설**  
지역 소재지 면적(㎡) 감평가 최저가 비고  
지역 소재지 1294/256 8,294억 3,944억  
지역 소재지 4210/1828 9,942억 1,942억

**수원 부동산 컨설팅**  
H·P : 010-5714-1114  
(하남공단 3번로 / 수원지구 앞)

**▶ 산일동 자연녹지**  
- 전지공도 - 보존명목 사이 약 6,000㎡  
- 주요소, 화물창고지, 물류창고/분할가능

**▶ 일곡지구 고급주택가 부지**  
- 롯데A, 입선초교 서측 약 380㎡  
- 고급주택 밀집지역 / 별도 토공사 불요

**▶ 단독주택 매매**  
- 단양동 중앙여고 ~ 문화예술회관사이,  
대지 92,000㎡ 2층주택 / 1층 주민집  
2층별도 출입 / 2기구 임대용  
정원수, 연못 관리상태최상 /  
최신인테리어 개보수 완료

**▶ 답양 관리지역 임야**  
- 창평 23,000㎡ / 폭9m진입로확보  
- 철도, 일곡에서 10분 거리  
- 공장, 매장지, 물류창고, 복지시설가능

**▶ 원흥매도 (수익을 약15%)**  
- 도산역세권 / 원흥17실,쓰리룸1실  
- 매가4억4천만원 / 실투자2억3천만  
- 보증금2억, 월세280만원

**▶ 수원지구**  
- 초대형학원 최고입지 확보  
- 아파트 분양권 포함 다수 확보  
(한진, 코오롱, 우이, LG지...)

**▶ 공장 매매 / 임대**  
- 하남, 소문, 평동공단 매매 임대물건  
수시 접수 & 처리중

**▶ 기타**  
- 수익성 좋은 10억 전후 건물구합/  
매수자 대기중